

2022 경기 문학작가 확장지원 프로젝트 【 최종선정위원회 심의평 】

경기문학작가 확장지원 프로젝트의 심의 결과 세 분의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번 확장지원 프로젝트는 그 동안의 경기문화재단 문학 프로그램을 돌이켜 그 성과를 모으고 작가들에게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한다는 의미로 진행되었다. 응모하신 분들의 작품을 보니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문학의 중요한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놓는 일이 되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작품과 작가들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마땅할 정도로 한국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추였다는 뜻이다. 심사위원들은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장르별 배분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작품의 수월성과 기대효과를 놓고 심의자료를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일차적인 심의 기준은 작가 역량, 예술성과 독창성, 기대효과였다. 더구나 작가 활동의 현재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차이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심의 위원들은 위의 기준과 함께 우선 작가의 창작 집중도와 연속성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김종광, 서성란, 정길연을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삶의 현실과 역사, 세계사적 고통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탐색해온 작가들이다. 농촌 현실, 이행기 역사, 해외 입양 등이 이들의 주제였고, 이들은 이 주제를 서사화하기에 알맞았으며, 작품의 주제는 지금 우리 현실과 잘 조응한다고 평가되었다. 이 영역에서 쌓아온 오랜 공력이 이들의 작품에서 더 큰 빛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장르 다양성이 외면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만 이 우려는 이 프로젝트가 해를 넘겨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여겨진다. 이런 지원 방식이 대중들에게 중요한 축제로 널리 알려져 한국문학의 깊이를 더 알차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9.28.

선정위원 조용호

선정위원 정홍수

선정위원 박수연